베트남 소신공양 '불멸 심장' 영구 봉안된다

베트남 불교승가협회 결의안 발표
1963년 소신공양 틱꽝득 스님 사리
은행금고 보관 후 20년 만에 공개
베트남 국립사원에 영구 봉안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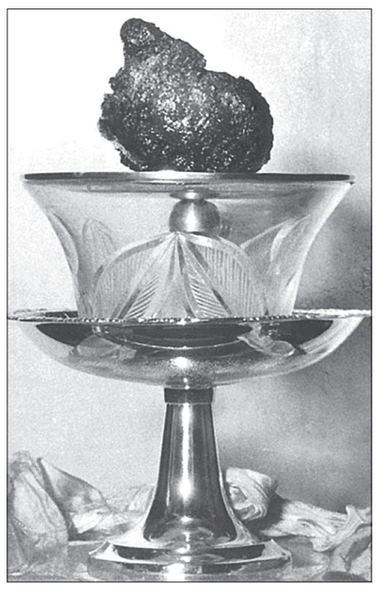
박영빈 객원기자

근현대 베트남 불교계의 위인이자, 소신공양으로 알려진 틱꽝득 스님의 심장사리가 호치민 국립 불교사원에 영구히 봉안된다. 지난 4월 4일 베트남 불교를 대표하는 베트남 불교승가(VBS)의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현지의 '지악 응오 온라인', '베트남 뉴스' 등의 주요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틱꽝득 스님은 불교를 박해하던 남베트남 응오딘지엠 정권에서 박해를 멈추고,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애와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며 1963년 6월 11일 호치민(당시 사이공) 거리에서 소신공양을 감행했다. 스님은 입적하는 순간까지 결가부좌를 풀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당시 베트남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끝내 남베트남 정부가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는다. 소신공양 당시 틱광득 스님의 세수는 67세, 법랍 47세였다.

이후 스님의 법체는 다시 예를 갖춰 다비됐다. 사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직 심장만이 불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불멸의 심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심장사리는 여러 차례 훼손 위기에서 벗어나 91년부터는 호치민의 국립은행 금고에 보관되고 있다.

4월 4일 오전 호치민에 소재한 국립불교사원의 종정실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베트남 불교승가의 종정인 틱트리꽝 스님은 올해 호치민에서 열리는 'UN 베삭축제'에서 인도로부터 이운해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함께 틱꽝득 스님의 심장사리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 국립은행에 보관중인 틱꽝득 스님의 심장사리. 시진출처=지악 응오 온라인

틱트리꽝 스님은 "UN이 지정한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베삭데이를 베트남에서 기념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베트남 불교계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VBS는 불교계를 위하여 소신하신 보살, 틱꽝득 스님의 심장을 불사리와 함께 공개하고 이후 심장사리를 국립 불교사원에 영구히 봉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꽝득 스님의 입적 후, 당시 사리 수습에 참여했던 VBS 부집행의장 틱 지안토안 스님은 "안전상의 이유로 틱꽝득 스님의 심장이 은행금고에 보관되었고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스님이나 대중이 이를 친견하고 공경을 올리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보관된 금고의 문을 열어본 적도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VBS의 상임위원회는 틱트리꽝 스님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 5개의 사항을 덧붙였다. 이는 심장사리를 은행에서 반환받기 위한 절차와 국립 불교사원에 봉안하는 내용에 대한 부칙으로 이후 VBS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대영박물관 '고대 인도, 살아있는 전통'展

종교 상징·철학·시각 진화 한눈
부처 형상 담긴 '금제사리구' 눈길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이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전통의 정수를 담은 유물 18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 '고대 인도: 살아있는 전통'을 개최한다. 5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리는 대영박물관의 특별전 소식을 4월 4일 영국 '이스턴 아이'가 전했다.

이번 전시는 약 2000년에 걸친 종교 예술의 흐름을 따라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신성한 이미지와 상징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전시의 출발점은 '고요하고 자비로운 부처의 얼굴, 자이나교에서 모든 집착을 버린 해탈한 스승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된다.

특히 세 종교의 유물은 고대 인도의 예술 중심지 마투라(Mathura)의 작업장에서 제작돼 종교 간 양식적 공통점이 드러난다. 조형 언어, 장식 요소, 신성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공통점


비마란 금제사리구, 아프가니스탄, 기원전 1세기. 사진출처=대영박물관

이 뚜렷해 세 종교가 분리된 교리 너머에서 문화적으로 교류해왔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전통이 해상 무역과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확산됐고 그 과정에서 인도의 성상은 각 지역의 신앙, 양식과 융합되어 다채로운 형상으로 재해석됐다. 불상과 힌두 신들의 지역별 변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문화적 혼종성과 전통의 유연함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신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했으며 전시해설과 유물의 배치, 접근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박물관 측은 종교적 예절을 존중해 유물을 다룰 때 신발과 양말을 벗는 등 신중한 태도로 준비에 임했다.

전시에는 대영박물관이 보유한 방대한 남아시아 컬렉션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기관과 커뮤니티에서 대여한 유물이 함께 공개된다. 모든 전시품은 출처와 맥락을 함께 밝히며, 소장 과정과 의미, 박물관의 해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전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아르다나리쉬바라(Ardhanarishvara)'는 남성 신 시바와 여성 신 파르바티가 하나의 존재로 융합된 형상을 담은 회화다. 이 형상은 성별 이분법을 넘어선 존재의 통합성과 균형,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며 불교적 중도 사상과도 통하는 철학적 깊이를 지닌다. 이와 함께 다섯 개의 머리를 지닌 뱀 신 나가(Naga)를 묘사한 17세기 명판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있는 민속적 신성성의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불교의 초기 표현은 부처님을 발자국이나 보리수 등 상징물로 나타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인간 형상으로 구체화됐다. 약 1세기경 제작된 '비마란 금제사리구(Bimaran casket)'는 금속으로 된 부처 형상의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로 불교 이미지의 전환기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또 서기 8세기경 중국에서 제작된 부처의 비단 수채화는 불교가 문화적·예술적으로 국경을 넘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니콜라스 컬리넌 대영박물관장은 "'고대 인도: 살아있는 전통'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신성한 이미지는 여전히 약 20억 명의 삶 속에 살아 있으며, 이는 단지 사원의 조각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제단, 스마트폰 배경화면, 거리 벽화, SNS 이미지 속에서도 신성함을 발산한다. 전시는 바로 그 '살아 있는 전통'을 오늘날의 맥락에서 다시 바라보는 기회"라고 전시 의미를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네팔, 불교로 이어진 외교 66년

성지 순례로 경제 협력 확대
정신 유대 넘어 경제 결합 '눈길'


MOU 체결 후 기념 촬영 중인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 부부(좌)와 네팔 샤르마 올리 총리 부부(우). 사진출처=더 네이션

태국과 네팔이 불교 유산을 축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일 태국 영자신문 '더 네이션'은 태국과 네팔의 MOU 체결 소식을 전했다.

양국은 무역, 투자, 농업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를 중심으로 한 불교 관광을 핵심 연결고리로 삼아 정신적·문화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외교 수립 66주년을 맞아 네팔 샤르마 올리 총리 내외를 공식 초청하며 이뤄졌다.

양국은 매년 수천 명의 태국 불자들이 룸비니를 순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강력한 불교적 인연이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단단한 기반임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에서는 관광 분야 중에서도 불교 성지 순례를 중심으로 한 공동 상품 개발, 기반시설 개선, 안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실질 논의가 이뤄졌다.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네팔의 수력 발전과 풍부한 약초 자원은 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불교적 연대를 넘어서 실질적 협력 관계로의 진전을 강조했다. 이에 네팔 샤르마 올리 총리는 "우리는 룸비니의 평화정신을 기반으로 아시아 불교 공동체 간 협력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농업, 보건, 교육, 무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여덟 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불교 관광과 의료 관광을 접목한 '웰니스 순례' 모델은 양국의 문화 자산과 경제 전략을 결합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올 11월, 스페인서 만나는 불교

스페인 불교계, 11월 컨퍼런스
저명 테라와다 수행자 강연도

스페인 불교계가 올 11월 마드리드에서 다섯 번째 연례 불교 컨퍼런스을 개최한다. 올해 컨퍼런스는 테라와다 전통의 다양한 수행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2일 국제불교 온라인 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해당 소식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 개최지로 정해진 아리야 타라 안거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마드리드에서 연례 불교 컨퍼런스를 개최함을 기쁘게 전한다"며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테라와다 불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아리야 타라 안거센터의 주지 마리아 돌마 스님은 "이번 행사는 특히 네팔 여성교육에 힘써온 비스타레 재단의 후원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연례 불교 컨퍼런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스페인 위파사나 명상 협회 이사인 제롬 라르메르와 테라와다 삼림 불교 공동체 공동이사인 후안 마누엘 세라노 등 스페인의 저명한 테라와다 불교수행자들의 발표와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1982년 태국에서 붓다다사 스님에게 위파사나를 배운 라르메르는 '위파사나 명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라르메르는 인도, 미얀마, 네팔, 태국의 수도원에서 수년간 생활한 후 1995년부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위파사나 명상을 가르쳐 왔다. 2007년부터는 스페인 전역에 명상그룹을 만들고 조직하는 스페인 위파사나 명상 협회를 설립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